

광주·전남 대학탐방

동신대학교

실력에 인성까지... 창의적 인재육성

취업이 대학의 최우선 과제가 된 상황에서 역으로 사회 봉사를 강화, 이를 토대로 학생들의 사회성과 인성을 높여 기업들의 선택을 받는 대학이 있다. 이 대학에는 교양 필수로 '인성'과목과 사회봉사 과목이 정식으로 개설돼 있어 대학가의 눈길을 끌고 있다.

졸업생 1000명 이상을 배출하는 광주·전남지역 일반대학 가운데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연속 취업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동신대학교(총장 김필식)가 그 주인공.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 정보 공시사이 트인 대학알리미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동신대학교 취업률은 올해 건강보험 가입률을 기준으로 65.7%에 달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취업률(62.5%)보다 3.2% 높아진 것이며, 올해 전국 대졸자 평균 취업률(58.6%)보다 7%가량 높은 것이다.

특히 동신대학교 취업률은 올해 '다'그룹(졸업생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대학 중에서는 전국 TOP 10, 졸업생 1000명 이상을 배출하는 일반대학 중에서는 3년 연속 광주 전남 1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취업 잘되는 대학이라는 명성을 굳히게 됐다.

이처럼 높은 취업률의 비결은 교수·학생간 밀착 취업지도교수제와 장단기 전략이 조화를 이룬 효과적인 취업 프로그램에서 찾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인성교육과 봉사활동을 취업과 별개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보는데서 출발한다.

동신대는 21세기 사회가 원하는 인재는 단순히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인성의 토대 위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라고 보고 인성함양 프로그램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남을 배려하고 남과 더불어 사는 마음을 갖춘 사람이 사회에서도 조화로운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봉사활동을 강조한 결과, 재학생 개개인의 인성 함양은 물론 학생들 사이에 바람직한 문화가 형성되고 이것이 사회적 평판에도 영향을 미쳐 취업률 제고를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동신대는 무엇보다 김필식 총장이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을 맡으며 사회 봉사활동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대학 내에 봉사 분위기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물리치료학과와 한의학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동신대 사회봉사단이 의료 시설이 거의 없는 진도군 관매도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

사회 봉사활동 통한 인성함양프로그램 추진

광주·전남 일반대학 중 3년 연속 취업률 1위

특히 김 총장이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의 회장을 맡은 이후 회원 배가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광주 전남지역 적십자 재원이 크게 확대돼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7일 김 총장은 대한적십자사 총재로부터 명예장을 받았으며 송경옥 대외협력실장은 대한적십자사 총재 표창을, 장성주 보건복지대학장은 지사 회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동신대는 '인성함양'이라는 교양 교과목을 신입생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해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인의 사회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또 매 학기 사회봉사 I 과 사회봉사 II 교과목을 개설해 학생들이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전개하면서 학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헌혈이나 농활, 의료봉사 활동에 참여할 경우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한편 마일리지도 부여해 일정 수준 이상의 마일리지 쌓이면 장학금으로 지급해주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역의 헌혈버스 차량을 이용한 헌혈캠페인에서 동신대학교가 광주·전남 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헌혈을 한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대학 차원의 사회봉사활동도 눈에 띈다.

동신대는 지난 2008년 교수와 직원, 학생들이 총망라된 대학 차원의 사회봉사단을 출범시킨 후 대대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동신대 사회봉사단은 일반적인 봉사단체의 봉사활동과 달리 구성원들의 재능과 전공을 최대한 활용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봉사활동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봉사단원을 전공에 따라 지역사회복지봉사, 일반 자원봉사, 의료봉사, 문화·공연 봉사 등 4개의 분과로 분류하고 광주, 순천, 목포, 서울 등 전국 4개 지역에 소재한 동신대 한방병원과 연계해 전문성을 살린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신대 물리치료학과와 한의학과, 안경광학과, 뷰티미용학과 교수 및 학생들로 구성된 사회봉사단이 3일 동안 의료 환경이 열악한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를 방문, 동계 봉사활동을 실시해 호평을 받았다.

김필식 동신대 총장은 "사회가 어려워수록 대학의 사회적인 역할을 망각하게 되는데 동신대는 오히려 사회적 기능에 주목하고 기본에 충실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3년 연속 졸업생 1000명 이상 일반대학 중 취업률 광주전남 1위라는 성과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원자력 불신 해소·지역 학술활동 앞장”

원자력학회 광주·전남복지부 출범... 지부장에 김승평씨

원자력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학술 활동을 펴나갈 한국원자력학회 광주·전남·전북지부가 지난 20일 오후 조선대 제1공학관 17층 세미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또 이날 출범식에서는 김승평 조선대 교수(공과대학 원자력공학과)가 한국원자력학회 광주·전남·전북지부에 선출됐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원전 지역을 중심으로 광주·전남·전북지부, 부산·경남지부, 대구·경부지부 등 3개

의 지역지부를 설치해 원전 지역 특성에 맞는 학술활동과 더불어 지역주민과 원전사업 기관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에 출범한 한국원자력학회 광주·전남·전북 지부는 원자력에 대한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활발한 학술활동과 상호 교류를 통해 원자력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산업기술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평 지부장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서남권 원자력의학원이 원자력진흥 종합계획

및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학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원자력과 방사선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원전시설이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원자력에 관한 학술 및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69년에 창립했으며, 현재 2700여명의 회원과 춘·추계 학술발표회를 통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기술 교류의 장으로서 기술자금을 이룩하는데 기여해왔다. 또 원자력학회 학술지인 NET는 SCIE에 등재돼 세계적인 학회로 인정받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대 ‘음악경영 전문연구과정’ 인기

광주·전남 최초 개설... 개인지도자·강사들 교육

피아노학원이나 개인 레슨 지도자와 같이 음악 교육과 관련한 학원을 운영하거나 강사를 희망하는 음악인들을 위한 전문가 교육 과정이 인기를 끌고 있다.

광주대학교 문화예술대학 음악학과(학과장 김정아)가 광주·전남 최초로 개설한 ‘음악교육 경영전문연구과정’이 바로 그것.

이 과정의 교과목은 음악교육경영의 기초와 심리, 커뮤니케이션과 리더쉽의 실제, 앙상블 실기지도와 연주회(피아노, 오카리나), 피아노교수법(광주대 음악학과 전임교수 특강), 학원경영법, 음악심리치료, 앙상블(피아노, 오카리나) 등으로 실제 음악교육에 필요한 과목들을 실기와 이론을 병행해 배우도록 구성돼 있다.

이 과정은 2학기제(한 학기 15주)이

며, 강의시간은 총 30시간이다.

이 과정에는 음악학원 및 교습소 경영자, 개인 레슨지도자, 학원 강사, 음악학원 설립 예정자, 피아노 교수법을 필요로 하는 사람, 음악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음악대학 전공자 및 해외 유학 후 학원 설립자 등 음악교육에 관심이 있는 음악교육경영 전문연구과정 수료 후에는 수료증과 수료패가 수여되며, 재학생 대학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광주대 음악학과는 음악교육 경영전문연구과정의 심도있는 교육을 위해 2011학년도 대학원에 전공 석사과정을 신설, 현재 8명의 대학원생들이 공부하며 새로운 융합학문으로서의 가능성을 검증받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 경영대학 서울동창회

인적네트워크 강화 정기총회

전남대 경영대학(학장 정용기)이 동문과 재학생 간의 인적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경영대학 서울동창회(회장 최원락)는 지난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1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동문기업 인턴 프로그램과 동문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재학생 50여 명을 초청해 격려하고 한해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경영대학 서울동창회는 대기업 임원들을 중심으로 후배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동문기업(인)과 함께하는 인턴사내 및 멘토링제’를 운영해 관심을 모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서영대·광주보건대·순천청암대

‘전공심화과정’ 지정대학에 선정

서영대학교와 광주보건대, 순천 청암대 등 광주·전남지역 3개 대학이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지정대학으로 선정됐다. 전국에서는 42개 대학이 선정됐다.

이번 조치로 인해 서영대 등 전문대학에서 산업체 경력없이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하게 됐다.

기존 전문대학에서 운영돼 온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9개월~1년 가량의 산업체 경력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엔 신규 지정된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학 졸업자가 산업체 경력없이 곧바로 입학해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조선이공대-오택캐리어 산학협력... 현장교육·실습

조선이공대학(총장 김용복·사진 오른쪽)은 21일 오전 에어컨 및 냉동기 제조업체인 오택캐리어(주)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조선이공대학은 이번 협약에 따라 위탁교육, 협동강의, 학생현장실습 및 현장체험 등 실질적 산학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률을 한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농성동 리더스하이 주택전시관

매매



Table with 2 columns: Item (e.g., Area, Price, Height) and Value. Includes details like '2,411.20m² (729.39평)', '59.53% (법정: 60%)', and '1,37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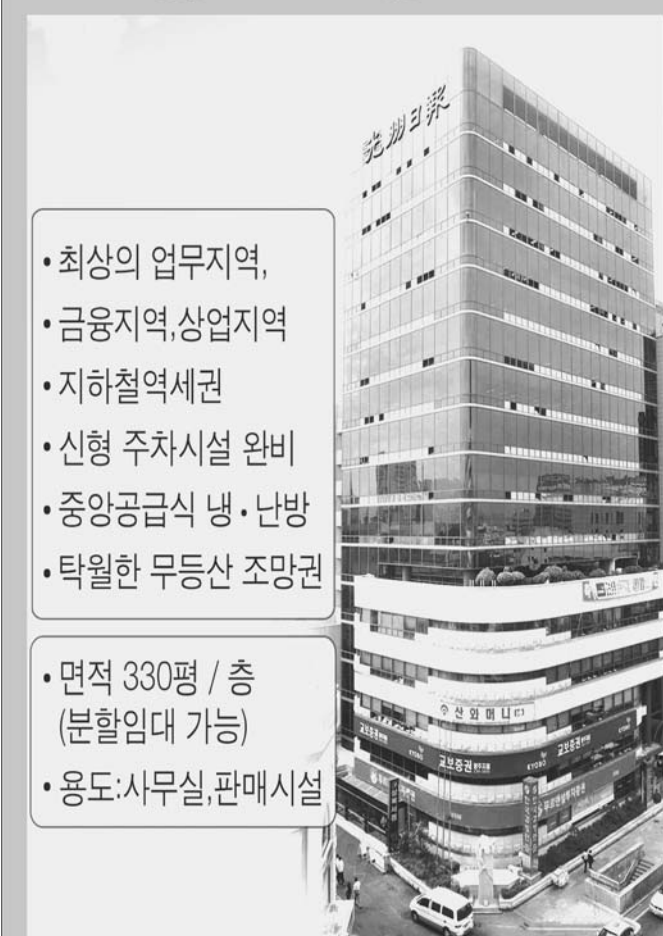
층별 면적 개요

Table with 5 columns: Floor, Area, Average, Height, and Use. Lists details for floors 1 through 9, such as '1층 1,374.92' and '9층 1,330.88'.

Table with 2 columns: Category (e.g., Price, Area) and Value. Includes '장부가격(감정가) 14,000,000,000원' and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문의처 : 010-3625-6984

무등빌딩임대



- 최상의 업무지역,
• 금융지역, 상업지역
• 지하철역세권
• 신형 주차시설 완비
• 중앙공급식 냉·난방
• 탁월한 무등산 조망권
•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현대공인중개사

토지 매매

- ▶ 자연녹지(물류창고, 공장적합)
▶ 계획관리지역 (물류창고, 공장 기타용도가능)
▶ 준주거지역 (병원, 사옥, 임대용상가건물신축부지적합)
▶ 화정동, 광소간도로변, 지하철역부근 대지 1,520㎡ (460평) 3.3㎡당 300만원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매매

- ▶ 풍암동, 지상6층건물, 보증금1억2천만원 월820만원 매매가13억5천만원
▶ 용봉동 지상4층 보증금2억2천 월810만원 매매가13억

수익성 좋은 다가구 주택

- ▶ 화정동, 4층건물, 원룸10실, 투룸3실, 스리룸2실, 4층 본인 거주 보증금9천 월400만원 매매가15억8천만원

공장 건물 매도

- ▶ 광산구 우산동, 광주공항 인근 대지2,975㎡ (900평) 건평 594.5㎡ (180평) 매매가8억

<급구>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토지
■ 본 광고물건은 전속 계약 된 물건임 ■

T.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